

## 「종조」연구, 새롭게 전개될 전망 총 40여점 각종 자료 분류정리, 분석 전산화 작업 착수



종조 원정 대성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 동안 법장원은 종조법의 유품을 재정리하면서 경전번역과 각종 법문, 교전(敎典) 등의 유품원고와 자료들을 분류·정리하여 왔는데,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종조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정신을 정리, 더욱 체계화해나간다는 계획이

다. 법장원 김홍배 연구원은 "관련 자료와 각종 사료(史料)들을 토대로 종조님의 정신과 사상을 재조명해나가는 작업은 종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법장원은 8월 중순부터 이들 자료의 전산화와 분석 탐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된 자료는

불교계통도(총지중 법맥도), 현밀원통성 불심요집 1권(역경), 밀교성전 1권(편찬), 유마경 7권(역경), 총지교전 2권(편찬), 용어해설집(편찬), 역학입문 1권(편찬), 역학요론 1권(편찬), 종조님 참고문헌류(불교 경전 및 밀교의계집 등), 종조 법문원고, 종조 육성법문 테입, 종조 법문일지, 정진일지, 불공 및 동향정진부, 명상록, 참회록, 각종 친필 원고, 서신류 등으로 총 40여점에 달한다.

이번 종조연구 및 자료 분류, 전산화 작업은 그동안 종조님이 이땅에 전통 밀교를 펴고자 노력하신 교상과 사상에 대한 재정립으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화 작업과 수행자료들 그리고 일상용품들

도 함께 정리될 것이다. 종조전 건립과 함께 종조유품 정리는 창종 30년을 되돌아 보고 종단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신나는 여름방학 부처님과 함께 지리산 청소년 수련관 2박3일 수행정진

제 12회 여름학생 수련법회가 경남 산청 지리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종합학교 학생 120여명이 모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2박 3일 동안) 열렸다.

첫날 입소식과 팀구성 및 집단체조에 이은 저녁법회에서 불교총지중 불공의 깨와 육자진언 음마니반메에 대한 설명과 의례를 직접 실천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한 밤에는 잠샘훈련 담력훈련을 통하여 단결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날 법정원 연구원 이종석씨는 법회에서 진언불공에 대한 효험, 마음 안정을 통한 공부를 잡하는 법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극기훈련, 생태조사, 지리산 축제의 밤으로 행사를 마쳤다.

## 우란분절 방생법회 성대한 회향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자비의 마음으로

부산 경남교구와 대구 경북교구신정회는 7월 16일 경북 정도 방호정유원지에서 방생합동법회를 가졌다. 1천여명의 교도들이 참여한 이날 법회는 하반기 49일 불공회향일을 맞이하여 진정한 방생의 참뜻을 세우는 자리가 되었다.

개식사, 유가삼밀, 봉행사, 교도대표 인사말, 법어, 발원문 식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부산 경남 교구 교구장인 정정심(부산 관음사 주교)전수는 "총지중은 창종 이래 우리종단의 종지로서 나 하나만의 고통 해탈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체 중생의 복락을 위하여 불공공덕을 회향해 왔다"며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뤄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고 하였으며 이어 대구 경북교구장 우승정사(경주 국광사 주교)는 "부처님의 계율 중 가장 의롭지 불살생 계율이며 방생은 죽어간 생명을 놓아주어 다시 살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방생이고 가장 큰 복업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상이다"며 각각 봉행사를 하였다.

해암 통리원장은 법어에서 "모든 것을 소중히 하는 마음, 일체존재의 인연 소생을 절실히 자각하여 생활해 나가는 모습, 나의 나쁜 버릇과 마음은 버리고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자비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자"며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보국과 중생제도의 대비원을 세우시고 나라와 중생을 위한 길은 오직 밀법에 의한 법요라 강조하며 총지



중 창종과 더불어 진호국가불사를 제정하여 나라와 국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대서원의 불공이다"고 진호국가 불사와 방생법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날 방생법회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교구 합동으로 법회를 진행하여 화합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각 교구 신정회에서 준비한 선물교환은 이웃 사랑과 남을 위한 보살의 모습에서 방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불교는 예로부터 해마다 일정한 때에 방생을 하고자 방생계(放生契)라는 것을 조직하여 방생회(放生會)를 열었으며 방생은 살생(殺生)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善行)이고 방생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善)을 행하는 일로 권장되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어류방생 조류방생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방생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보살사상을 실현하는 넓은 의미의 방생을 진행하고 있다.

### 해암 통리원장 전격 사임



해암 전 통리원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7월 22일자로 사임하였다. 해암 전 통리원장은 지난 총기 30년 2월 14일 제 12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여 법의 개정과 불단정업과 호남지역 교회를 위한 법화사, 흥국사 사원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본산건설에 열의와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13대 통리원장은 아직 내정되지 않고 당분간 원송 총무부장이 대행체제로 이끌 것 같다.

해암 통리원장은 인기 7개월을 남기고 전격 사임하였다.

## 자비의 손길 수재민에게 커다란 희망 수재의연금, 자원봉사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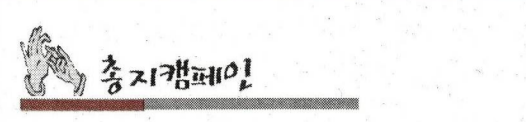
대중 '루사'로 인한 수해 피해에 전국 수해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전국민의 온정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총지사(법등 주교) 교도들은 수재민들의 소식을 듣고 전국 사원 중 가장 빠르게 성금을 모금하여 지난 8월 말에 성금을 KBS에 기탁하였다. 또한 부산경남교구(교구장 관음사 주교 정정심)도 수재의연금 500여 만원을 모아 KBS와 사회복지재단에 각각 성금을 기탁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대원 덕화사 주교는 "현재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에 '루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교도들의 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으며 월초 불공

기간이지만 개별적으로 교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수재민들과 함께 휴탕물에 젖은 옷가지들을 빨고 도로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안겨 주었지만 총지중 교도가정들의 피해는 경미한 사고 이외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월초불공이 끝나는 9월 이후에는 각 사원별로 조직적인 자원봉사조직과 수재의연금 모금을 통해 이번 수재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재기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기대된다.



### 소유한다는 것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척도가 그 사람이 갖고있는 인품이나 성격, 마음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소유로 구분 짓는 오류를 범하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을 만날 때 일단 그 사람의 뱀뿔이보다는 그 사람이 소유하는 소유물이나 누리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곤 합니다. 물론 가진 소유물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인품이나 마음지리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유물을 가지지 못한, 혹은 소유물이 적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다 나은 소유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말 그대로 소유물을 위해서 일생을 걸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지는데 치중하다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 나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아파트 편수, 좋은 차, 내가 이룩해 놓은 사업체, 나의 명예, 등등 그 어떤 것이 우리네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비뚤어진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수용했습니다. 이런 전도된 가치관으로 우린 우리의 본래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동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세간의 잣대로 내 삶의 가치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유하는 데만 너무 급급하게 사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일생의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전부 집어넣어 놓고 내 호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 한 행위가 혹시 남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과연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말합니다. (도현)

### 축비소리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대비심을 발하는 것이니,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하기 때문이다.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어 모든 세간을 다 같이 복되게 해야 하며, 인자한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어야 하며, 이렇게 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들이 나쁜 법에서 떠나게 해야 하며, 애민심을 내어 두려워하는 이들을 다 수호해야 한다. 결립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장애를 여의게 해야 하며, 광대한 마음을 내어 모든 법계에 가득차게 해야 하며, 끝없는 마음을 내어 허공처럼 가지 않는 데가 없어야 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내어 모든 여래를 다 친경해야 하며, 청정심을 내어 삼세의 법에 지해가 없어야 하며, 지혜의 마음을 내어 온갖 지혜의 바다에 두루 들어가야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

## 불교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을 진언의 세계로 모십니다.

**종령특정**

중앙총의회의 장 의 강	중앙총의회 부의장 법 공
총무부장 원 송	서울경인교구장 해 정
재무부장 지 성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교정부장 법 등	대구경북교구장 우 승
사회부장 대 원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 사설

##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전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놓고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월드컵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월드컵대회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래도 손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꿈에도 그리던 16강을 넘어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룩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축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번번히 1승의 문턱에서 좌절하던 우리나라의 축구가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 그리고 국민의 열광적인 성원에 힘입어 4강의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한국인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또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렬한 성원을 보냄으로써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자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준 것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값진 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쾌거의 배경에는 거스 히딩크라는 탁월한 능력의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 개인의 능력이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던 한국축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그러한 여파가 온 나라를 흔들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도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히딩크 개인의 축구에 대한 안목과 지도자로서의 능력 이외에도, 학연· 지연·혈연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품성을 존중하여 선수를 발탁했던 그의 혁신성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은 히딩크의 이러한 지도력을 보면서 많은 반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기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소신도 없이 복지부동의 자리 지키기, 뒷사람 눈치보기, 책임 전가하기, 헛된 명예심 등으로 무장한 무능한 지도자들은 이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사회 구성원 각자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능한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에게는 아낌없는 성원과 찬사를 보내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각층의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토를 조성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절감하고 의식의 과감한 혁신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과 한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의식을 개변하여 사회의 고질적 병폐와 악습을 타파하고 거듭나는 일이다.

# 社 告

대표전화 : (02) 552-1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발행인 : 해암 종사 편집장 : 원승 대정사 인쇄인 : 김준배  
 창간 : 총기 24년(1995년) 10월 16일/1995년 8월 29일  
 등록번호 : 마-2360호  
 서울 경인교구청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45 (02) 889-0211  
 충청 전라교구청 : 광주시 남구 구동 29-18 (062) 676-0744  
 대구 경북교구청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43-3 (053) 743-9812  
 부산 경남교구청 : 부산시 진구 당감2동 64-5 (051) 896-1578  
 종립 동해중학교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25 (051) 555-4457  
 금강승지수련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 13 (043) 833-0399  
 사회복지재단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 3452-7485  
 구독신청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종보편집실 (02)552-1083

# 제2차 종정(宗政)자문회의

## 종조전 시설 위원 위촉 및 승직법 개정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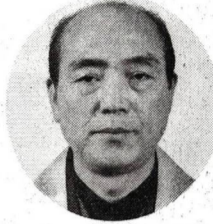
지난 8월 16일 오후 2시 종정실에서 제 2차 종정(宗政)자문위원회가 열렸다.

목정 종령 및 법장화, 총지화, 경관, 원봉, 수성, 해산, 효강 기로스 관 참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목정 종령은 종정(宗政)현안에 대한 설명과 종조전 건립 및 시설추진위원회를 위촉하였다.

목정 종령은 "원정대성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종조전(宗祖殿) 설립이 이제와 추진됨이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늦었지만 원정님이 이 땅에 전통밀교의 뿌리내린 뜻을 살려 종조전의 정신과 사상을 조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하셨다.

종양종위원과 승단총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종조전시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성 연구원 이종석 법경 등 총 7인을 화사 주교 법공, 만보사 주교 법성, 위촉하였다.

### 종조전시설위원회



성화사 주교 법공



만보사 주교 법성



국광사 주교 우승



밀인사 주교 원승



정혜서원당 주교 지성



덕화사 주교 대원



법경



화령

후보를 사랑합니다  
 구독문의  
 02)552-1083

## 승단총회 화합·개혁·발전논의

### 전 승단 종단 개혁, 교화발전 위한 용맹정진

입시 승단총회가 지난 8월 27일 2시 총지사 서원당과 통리원 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해암 전통리원장 결석에 따른 문제와 교화발전방향에 대한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목정종령은 해암 전 통리원장의 사안에 대한 여러 정황을 설명하고 승단의 흔들림 없이 종생교화와 종단 발전에 일로 매진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 해암 전 통리원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종단과 교도들에게 미안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과 승단이 화합과 발전에 디딤돌과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승단 총회에서는 종단의 최고법인 종헌 증법의 준수와 각 기구 및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수성 기로스승은 "지난 종정자문

위원회에서 목정 종령님에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고 건의하였으며 "또 종단의 기구인 원의회, 종의회, 총회를 거쳐서 안건이 처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관상사 주교 정정심 전수님은 "오늘 이 자리는 승단 총회의 자리로서 지난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종단발전에 허심탄화한 토론을 하자"며 "종헌과 종법에 명시된 스승의 사명에 충실한 스승의 상을 세우자"고 하였다.

한편 목정 종령은 "종단행정을 이끌 사람은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령과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기로 스승을 종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종단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종령의 임시 조치권을 부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삼밀사 주교 의강 종양총회 의장은 "종단의 발전에 대

해 노심초사하시는 종령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오늘 종령님의 임시 조치권에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류하여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법황사, 풍곡사 올해 완공

### 전통과 현대적 실용성 조화

호남포교의 전진기지로 마련된 광주 법황사와 전주 풍곡사의 신축 공사가 각각 마무리와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광주 법황사의 경우 장마로 인한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었지만 오는 9월말쯤이면 모든 공사를 마무리지를 것 같다.

특히 광주 법황사의 경우는 외관과 바닥을 도로 마무리하고 지붕에 기와를 얹어 건물의 장중함과 전통미와 현대미를 두루 갖추었다.

종령은 "승단총회에서 여러 스승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임시조치권 의견을 유보하고,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9월 월초불공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불공을 하여 법문을 언길 바라며 10월 강공에서 다시 거론하자"고 종령님의 의견을 유보하였다.

한편 이날 승단총회에서 종조전 건립에 대한 승인과 종조전 시설추진위원회에 각각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신재홍사장은 "광주 법황사의 건축미가 지역사회에 벌써부터 회자되어 광주 KBS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취재를 하는등 관심을 끌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불상사 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원으로 손색없이 하겠다"고 하였다.

전주 풍곡사의 경우도 광주 법황사와 같은 형식으로 사원을 신축할 것이며 올해안으로 공사를 마무리지를 예정이다.

# 교구소식

## 신임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해정 정사 선출



지난 8월 22일 서울 경인 교구 교화연구회가 실시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 경인교구 "인환수원 벽룡사 주교가 일신상의 문제로 서울 경인교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여 신임 교구장에 해정 관상사 주교가 선출되었다.

또한 서울 경인 교구 총무에는 실지사 주교 선도원전수님이 선출되었다.

신임 서울 경인 교구장에 선출된 해정 정사는 전임 교구장의 남은 임기까지 교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 경인 교구장의 임기는 총기 33년 3월1일까지다.

한편 같은날 서울 경인 신정회도 회의를 가져 회장단을 새롭게 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 신정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종단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통밀교 교도로서 확고한 교단 자정운동 전개, 자녀와 함께 사원에 다니기 운동, 각 부분별 모임 결성을 통한 교도 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서울 경인 교구 신정회 신임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해정 관상사 주교, 명예회장 민혜경, 회장 정광보살, 수석부회장 원각화 보살, 부회장 김은숙, 이타심, 안옥진, 수장, 지산주, 송옥선, 이정숙, 백길수, 총무 김동운, 보덕재, 감사 이인성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 경원 정사 정각사 주교 임명



그 동안 정각사 주교대행직을 수행하였던 경원정사가 지난 8월 1일자로 정식 정각사 주교로 임명되었다.

경원정사는 총기 25년 입교하여 줄곧 정각사에서 근무를 하여 교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행정에 밝으며 현재 제 8대 중앙종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경원정사는 "더욱 분발하여 부산 지역에 최고의 사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 법회 활성화와 종립학교 동해중에 신경을 써 종립학교의 위상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였다.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개천사 신도회 20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성화사 백정선 3,000	실지사 이명환 1,000	해정사 미확인 10,000	박옥란 5,000
관상사 김복락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성화사 옥돌연 5,000	실지사 이상배 5,000	해정사 정동란 5,000	서영순 10,000
관상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이희원 15,000	성화사 이성이 10,000	실지사 이숙례 3,000	흥곡사 강문석 10,000	심미자 10,000
관상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성화사 정옥연 10,000	실지사 이화수 5,000	흥곡사 강한빛 20,000	오순자 10,000
관상사 홍순화 10,000	밀인사 허을순 10,000	수인사 김광조 150,000	실지사 일월정 5,000	김경순 5,000	유정에 3,000
기로원 권수교 10,000	백월사 강강미자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실지사 장근도 10,000	김은혜 10,000	윤원수 10,000
기로원 김재영 10,000	백월사 김석순 5,000	수인사 김수생 5,000	실지사 정난채 10,000	박종석 5,000	이병조 10,000
기로원 서태현 10,000	백월사 남철구 10,000	수인사 김하을 110,000	실지사 정정에 10,000	방원순 10,000	이연수 5,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수인사 최공자 10,000	실지사 주영채 3,000	이계순 5,000	이위임 10,000
밀인사 김은숙 10,000	백월사 박중순 10,000	실보사 신정희 200,000	실지사 최 윤 5,000	이말이 3,000	이형란 5,000
밀인사 김춘옥 10,000	백월사 박현자 10,000	실보사 이순우 10,000	실지사 최 환 5,000	정명순 5,000	이호면 100,000
밀인사 남방자 5,000	백월사 이동성 5,000	실보사 차원기 10,000	실지사 최재숙 5,000	정은선 5,000	전남수 5,000
밀인사 명랑실크 20,000	백월사 이민자 10,000	실지사 김경자 5,000	실지사 황석순 30,000	김 진 10,000	정길오 5,000
밀인사 박순자 5,000	백월사 이용운 5,000	실지사 김복산 5,000	운천사 강성근 5,000	김덕자 10,000	조숙자 5,000
밀인사 박희분 3,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실지사 김선차 5,000	운천사 김진우 5,000	김성국 5,000	조중기 5,000
밀인사 배태임 5,000	백월사 한귀환 10,000	실지사 김옥순 5,000	운천사 이혜주 5,000	김연자 5,000	조현기 10,000
밀인사 신대식 10,000	법천사 박길수 10,000	실지사 김해승 5,000	정심사 박옥란 5,000	김진아 5,000	최영례 5,000
밀인사 신동희 10,000	법천사 임선순 5,000	실지사 박미선 3,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류운자 3,000	허태연 30,000
밀인사 신동희 10,000	벽룡사 최영해 5,000	실지사 성대성 1,000	통리원 총사모 30,000	미확인 5,000	1,685,000
밀인사 육근희 10,000	성화사 김상연 10,000	실지사 송무생 5,000	해정사 권영숙 5,000	박순희 5,000	
밀인사 이경자 5,000	성화사 김을임 3,000	실지사 송우섭 1,000	해정사 김정규 5,000	박승삼 5,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송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지상설법

효심(孝心)이 불심(佛心)이다

어버이에 孝順하면 자식 또한 孝順할지니 내가 不孝하면 자식이 어찌 孝順하겠느냐.

孝順은 心德의 大元이요, 百行의 根本이며 菩提行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수계사 원봉 기로스승>

우리 한 민족은 조선시대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경로(敬老) 및 효도사상은 유교의 가르침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부처님은 유교에 훨씬 앞서 효에 대해서 법설(法說)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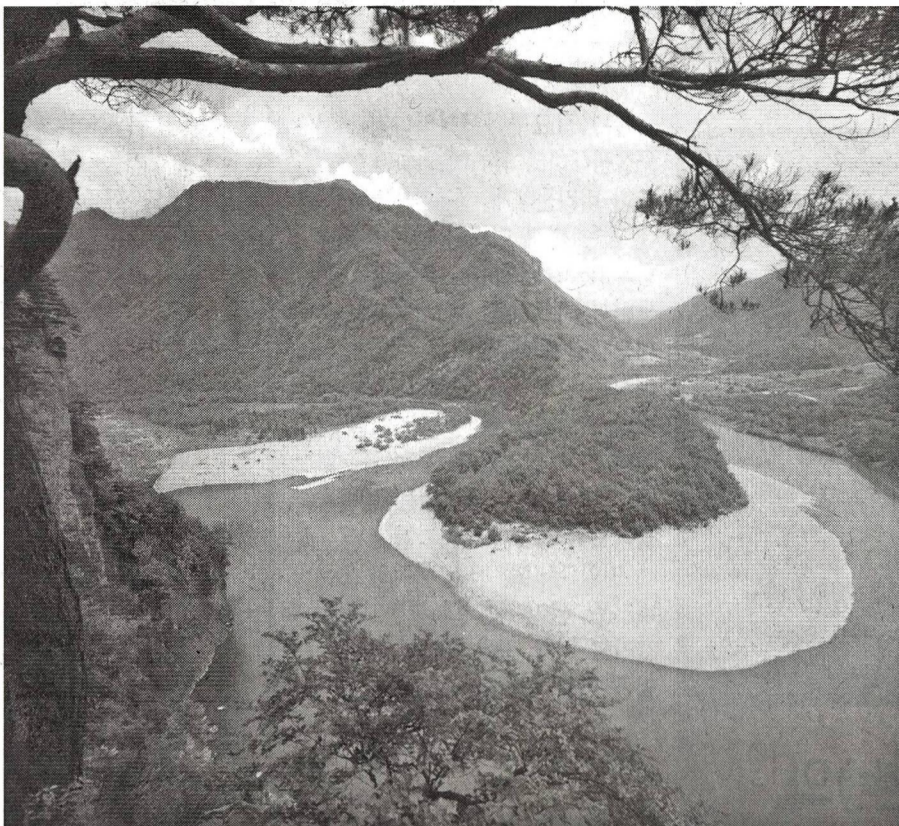
부처님은 <부모은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가사 사람이 왼쪽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 가족이 달아서 뼈가 들어나고, 뼈가 뚫어져서 골수가 나오도록,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능히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지 못하며, 가사 사람이 기근을 만나서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부모에게 드린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능히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지 못하며, 가사 사람이 드는 칼로써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눈을 드러내어 여래에게 바치기를 백천겁을 하여도 능히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지 못하며, 가사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드는 칼로써 그 심장과 간을 베어 땅에 피가 고 이더라도 고통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백천 겁을 지나도 능히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지 못하며, 가사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몸 에 등불심지를 쫓아 불을 켜고 부처님 공양하기를 백천겁을 하여도 능히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하리라.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읽으며 부모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를 위하여 삼보를 공양하며 부모를 위하여 재계를 받아 가지며 부모를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한다. 만약 능히 이렇게 하면 효순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행(行)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은중경>

불교 경전에 있는 효의 가르침을 보면 첫째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고 둘째 의식의 병양을 게을리 하지 말고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과의 법이 다를 수는 없다.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를 하면 현재에서도 좋은 복과를 받게되고 사후에는 극락에 왕생한다”고 하셨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자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생을 얻은 후 초목처럼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의 보살핌으로 몸과 마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인과법에 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연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나는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손과의 인연 또는 나의 업과 근기에 따라 결정된 인연의 연속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 잘 사는 것도 나의 업이요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하게 사는 것도 나의 연연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의 위치가 명확하니 우리는 각자 처한 현 위치에서 슬기롭게 현실을 극복하면서 조상과 부모님께는 자손의 도리를 다하고 지손에게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형제 부모 자매등 다른 모든 인연과의 위치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리행이 될것이요, 그 마음은 바로 보리심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합니다.

생활속의 밀교

진언의 수지독송

경전에 나오는 진언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모래알을 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진언의 종류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설하시는 불보살에 따라 다르고, 자수(字數)나 형태, 구성요소 에 따라 그 진언도 다양하다.

대체로 진언은 진각성취(眞覺成就)의 출세간적 진언과 양재초복의 세간적 진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밀교경전의 대부분은 죄업과 재난을 소멸하고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세간적 진언이 주류를 이룬다. 미약한 중생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방편으로서 가장

그리고 몸과 마음, 주위환경을 정화하는 정구업진언, 정삼업진언, 오방내외 안위제진언, 정법계진언, 서방극락정토왕생을 위한 아미타불심중심수, 무량수여래심수, 무량수불설왕생정토주, 결정왕생정토진언, 상품상생진언, 선방 부모왕생정토진언, 병을 낫게 하는 약사여래진언, 칠불약사진언, 신행과 관계되는 현향진언, 불삼신진언, 보소청진언, 보공양진언, 발보리심진언, 업장소멸을 위한 참회진언, 광명진언, 소재갈상다라니, 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소원성취를 위한 대원성취진언, 보부모은중진언, 수구다라니 등이 있다.

옴마니 반메흠은 진각성취, 양재초복을 원하는 으뜸진언

용이한 교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밀교 경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진언이라니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간적 교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밀교의 양부대경(兩部大經)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에도 공, 반야, 유식 등 대승사상이 설해지는 동시에 진언의 계승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어떤 면에서 경전이라고 보다 ‘밀교 진언집’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다. 특히 금강정경류는 진언의 개수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이다.

불보살의 진언으로는 대일여래진언인 ‘아미타훤훤’과 ‘옴 바즈라 다투 밤’이 있고, 아미타여래의 근본다라니, 관세음보살유자진언, 준제관음진언, 성관음보살진언, 여의륜관음보살진언, 마두관음, 미륵보살진언 등등이 있고, 그의 명왕부진언, 제천진언 등이 있다.

중조 원정대승사께서는 바쁜 현대인들의 근기를 감안하여 방편시 설(方便施設)으로써 진언 중의 왕진언인 육자대 명왕진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진언으로 육바라밀의 원만한 공덕을 갖추어 무진번제(無盡辯才)와 청정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다.

일상에서 잠시라도 이 진언을 잊지 않고 지송하여 보자. 길을 갈때도 ‘옴마니반메흠’, 잠자리에 들때도 ‘옴마니반메흠’, 일어날 때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을 입버릇처럼 되뇌어보자. 상대의 허물을 보기전에 먼저 적은 금액이라도 차시(差施)를 하고 항상 ‘옴마니반메흠’을 염송하여 보자. 이것이 생활 가운데 있는 참불공이라 하겠다. 종조님께서 처처불공 시시불공이라 하셨다. 시시처처에 항상 수지독송하는 그 공덕은 무량무진한 것이다.

(법정원 법경)

좋은 부모 만나 잘 사는 것도 나의 업이요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하게 사는 것도 나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바른 교훈(敎訓)과 명령(命令)을 어기지 말고, 넷째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 효도(孝道)하는 길이라 하였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롭고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효도(孝道)하는

것이라 했고 효(孝)에 대한 경전으로는 부모은중경 외에도 다른 여러 경전에서도 효의 윤리를 다룬 경전이 많다.

부모은중경은 효를 강조한 경전으로서 유교의 효경을 능가하는 경전으로 소중한 경전이다.

종조님이 설하신 종조법설집을 보면 어버이에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효순은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보리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도리를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며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작자업을 설명한 것이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연장하여 다른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의 도리이며 순리한 것이다. 뒤집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불효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근본을 저버리는 소행이라 할 것이며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에 대한 행위를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심덕의 대원이며 자신의 상만 알고 부모도 안중에 없는 그러한 집안의 말로는 가히 잠작할 수 있을 것이다. 효심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덕의를 존중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을 것이다. 설사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재물과 권세도 그 지조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불교 교리에서는 인과응보에 대한 설법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마는만큼 보이고 느꼈다 입장을 소멸하는 '기도'

기도는 중요한 수행법의 하나로서 매우 신비롭고 미묘한 내 용을 지니고 있다. '기도'라는 말은 그대로 받드는 뜻이다. 중생들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죄업은 무겁고 복덕이 얇은 관계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온갖 재난과 재앙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러한 고난, 장애, 재앙은 다 그가 날 적 부터 지니고 태어난 전생의 업 보(業報)와 업장(業障) 때문이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불, 보살의 가지를 입게된다. 그리고 그 가지력에 의해 타고난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해서 모든 고난, 장애, 재앙에서 벗어나 하는 일과 구하는 바를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덕(福徳), 지혜(智慧), 자비(慈悲), 만덕(萬徳)의 무한한 능력을 갖추신 부처님과 보살님께 진심으로 귀의하여 예배, 공양, 참회, 발원 함으로써 불, 보살의 가지력을 입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

다. 염불과 주력도 그와 같이 죄업을 소멸하고 지혜 복덕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보다 직접적으로 불, 보살의 가지력에 의하여 죄업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우주에 충만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

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기

기도는 입장을 소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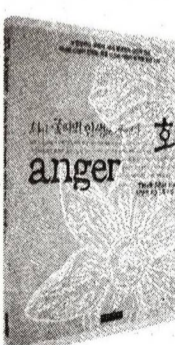
도는 마치 텔레비전의 안테나처럼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이 자비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성으로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중생의 마음속에 걸림이 쌓여 있는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마치 태양과 같은 지혜 광명이 빛나는 것이다.

기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종단에서는 진실한 참회와 지극한 염송과 불공으로는 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하고 있다.

턱낫한 스님의 명상 세계

잔잔한 감동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든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 명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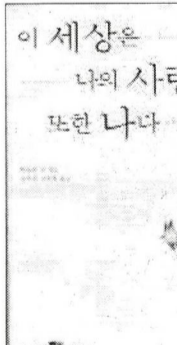


턱낫한은 화가 났다면 말을 삼가고,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고 일러준다. 화가 나 다른 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그 역시 같은 말을 해 둘 다 마음이 아플 것이고, 거울을 통해 본 화난 얼굴은 극도로 긴장해 일그러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과 대화하고 상대방을 연민의 감정으로 대하면 어떤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시 마음을 다스리면 외부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고 쉽게 화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화를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이 소개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맹세가 첫번째다. 부부와 가족, 친구들이 더 이상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 혹은 행동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두번째는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훈련법이 제시된다. 세번째는 호흡, 숨을 들이쉬는 때는 "안으로", 뱉을 때는 "밖으로"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서 화 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몸의 긴장을 푸는 에너지를 만드는 법. 눈을 감고 방바닥이나 침대 위에 편하게 누워 바닥에 닿는 신체의 감각 느끼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 김영사 턱낫한은 우리의 마음을 '발'에 비유한다. 그 발에는 기쁨, 사랑, 이해,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씨앗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분노, 미움, 절망, 시기, 외로움, 그리고 건강치 못한 집착 등과 같은 부정적인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평화롭게 다가가 미소짓게 만드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달라이 라마와 더불어 두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일컬어지는 영적 스승 턱낫한의 깨어있는 삶의 예술큐.

'이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 양문출판사



당신의 영혼을 두드리는 말씀. 고요히 앉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숨쉬고 웃을 때 우리는 참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를 열어 두면 참 자신을 프로그램이 침입하도록...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시끄러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여 파괴하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턱낫한 명상은 아주 작은 앉아 있을 곳밖에 필요로 하지 않지만, 대중매체나 싸구려 학문으로 마음속에 주입된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다 없애줍니다. - 게리 스나이더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경이로움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푸른 하늘, 햇빛, 아기의 눈물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깨어 있음에 달려... 깨어 있음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매우 풍요로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것은 생을 제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 일란 비디너

턱낫한 스님은 누구인가?

턱낫한은 베트남 왕조의 행정관료 가문에서 태어나 18세에 출가했고, 1960년대에는 반전(反戰)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사이공 정부의 미움을 받았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국제 여론에 호소하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자 1968년 프랑스를 망명지로 선택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는 프랑스로 밀려온 보트피플의 수용소를 세워 봉사활동에 나섰고, 주로 영문판으로 번역된 저서의 인세 수입으로 넓은 농장들을 매입해서 플럼 빌리지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점차 프랑스보다는 10만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미국에서 더 높다. 그는 미국 버몬트주에 세운 '그린 마운틴 다르마 센터'와 플럼 빌리지를 오가며 생활한다.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감로탱(甘露幀)

영혼들이 극락에 왕생하는 과정을 그린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화

사찰에 있는 많은 전각 중에서도 대웅전의 넓은 공간에 감로탱(甘露幀)을 걸어 놓고 죽은 넋을 구원하려는 감로시식(甘露施食)의례는 불교도가 아니라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종교는 죽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산물인 만큼, 수도자들과 왕후장상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제사의식을 통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의식의 장면을 육계, 색계, 무색계를 종합한 광경으로 표현한 탱화는 사찰 전체에 있어서 신앙적인 핵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로탱은 수륙재(水陸齋)나 49재(四十九齋) 때 쓰이는 중생의 영가천도(靈駕薦度)를 위한 제사의식용 불화이다. 즉 모든 중생의 고통(孤魂)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극락으로 왕생(往生)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감로탱의 중앙부분에는 고통 받는 고태의 대표격으로 크고 험상궂은 아귀(餓鬼)가 있다. 그 아귀에게 성찬(聖饌), 즉 감로(甘露)를 베푸는 의식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제단(祭壇)



살(尸路王菩薩)등 영혼을 구제하는 모든 불보살들이 망라되어 있다. 감로탱(甘露幀)은 욕계중생(欲界衆生)의 영혼들이 극락에 왕생하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화형식이고, 화면 중앙에 커다랗게 묘사되며 쌍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아귀는 여러 경전들에 비추어zien 의미는 실로 다양하다.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경』, 『무구경광대다라니경』에 의하면 한 바라문에게 아귀가 나타났는데 몸은 바싹 마르고 목은 비늘처럼 가늘고 입으로는 불꽃을 내뿜으면서 이르기를 “바라문아, 그대는 7일 뒤에 죽어서 무서운 아비지옥에 빠지고 한없이 거둬 태어나 괴로움을 끝없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두려움에 떨며 아귀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자 아귀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를 백천 아귀와 모든 바라문, 선인, 열라의 명관, 귀신, 그리고 먼저 죽은 이들에게 모두 일곱 가지 곡식을 베풀고 삼보를

감로탱(甘露幀)은 욕계중생(欲界衆生)의

영혼들이 극락에 왕생하는 과정을 그린 것

壇) 원전에는 이 법회를 주재하는 승려를 비롯하여 독경(讀經)하는 승려들과 북을 치고 바라춤을 추는 승려들의 무리가 있다. 중앙의 법회 장소 좌우 주변에는 왕후장상(王侯將相)과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법회의 밑 부분에는 중생의 여러 가지 죽는 장면들이 조그맣게 풍속도(風俗圖)처럼 그려져서 병풍처럼 배열되어 있다. 말하자면 하단에는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아수라(阿修羅), 인(人), 천(天)의 욕계(欲界)가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욕계의 중생들은 영원히 생사윤회(生死輪廻)하는 육도중생(六道衆生)들로서 중단(中段)의 시아귀(施餓鬼)의 의식을 통하여 아귀만이 아니라 욕계의 모든 망령들이 색계(色界)의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의 도움을 받아 무색계(無色界), 즉 극락왕생, 혹은 불(佛)의 세계인 해탈(解脫)의 경지로 인도되는 단계적 상승과정으로서의 십계(十界)의 세계가 전 화면(全畫面)에 가득히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단에는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비롯하여 사방불(十方佛)을 상징하는 일곱 여래와 백의관음(白衣觀音), 지장보살(地藏菩薩), 인로왕보

공양하면 너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우리 아귀들도 아귀고(餓鬼苦)에서 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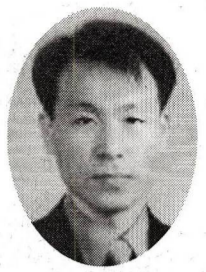
이에 바라문은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가 아귀고를 면할 수 있도록 구원을 간청하니 “바라문아, 네가 이 다라니법(陀羅尼法)을 배웠면 능히 일식(一食)이 모두 감로음식(甘露飲食)으로 변하여 모든 일체 아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라문아, 그대의 수명이 오래가고 목숨이 다한 연후(然後)에 극락왕생하고자 한다면 지금 곧바로 가비라성(城)의 길에 무너져 가는 탑이 있는데 그 탑을 중수하고 탑에 다라니를 써서 넣고 공양하면 그대의 수명이 오래 갈 것이고 목숨을 마치면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다.”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감로탱의 하단에 나타난 여러 죄업은 우리들의 모든 현실의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 크게 그려진 아귀는 바로 나의 망령이여 나의 자화상이라 할 것이다. (법일)

불교 에세이

두 눈 가진 사람이란



양동호 법사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권을 지니고 있는 일주일일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추첨이 끝나는 일요일은 다시 허탈해지지만, 다시 월요일 복권을 구입하면 또다시 행복한 일주일일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꾸겠습니까. ‘당첨이 되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집을 살까. 자동차를 살까. 장사를 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자진 것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전 복권으로 40억이 당첨된 사람이 있더군요. ‘야!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한 법우님들도 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통계에 따르면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 끝이 비참하리 만치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돈을 어떻게 써야할 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에 이르는 실천덕목인 팔정도가 있습니다. 아다시피 팔정도란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 그것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정명은 ‘바른 생활’, 또는 ‘바른 직업’의 의미입니다.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 불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

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출가자를 제외한 재가자는 재산의 획득과 증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을 배우고 그 후에 재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단단하게 재산을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비구들이여, 두 눈 가진 사람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얻거나 늘이는 눈을 갖고 있다. 또한 재산의 획득과 증식을 위한 선한 방법과 악한 방법, 비난받고 칭찬받는 방법, 천하고 고상한 방법, 떳떳하고 어두운 방법을 잘 식별

하는 눈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 눈 가진 사람이라 부른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만큼이나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흔히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와 황금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혼자서 누리고 먹는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법구경)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일주일일 40억의 꿈에 부풀어 살겠죠. 하지만 그것은 한낱 꿈일 뿐입니다. 스스로 멈출려 번 돈이아팔로 가치있고, 그 쓰임에 빛이 더할 것입니다.

법우님들은 복권을 사보신 적 있습니까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 인터넷이 14일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덴마크의 의료진이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1만2천여명을 상대로 22년간 조사한 결과, 하루에 불과 3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경우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두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하루 여섯 개비의 담배를 피우면 이런 위험을 저할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이처럼 더 위험한 것은 남성보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다가 흡연이 심장 질환에 대해 보호 능력이 있는 에스트로겐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오래 살고 싶으면 적게 먹어라 오래 살고 싶으면 적게 먹어라.

그리고 흥분하지 말라. 소식과 차분한 성격이 장수와 관련이 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전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 국립노화연구소가 1958년부터 볼티모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노화과정을 추적한 연구결과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연구팀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체온과 활약을 따라 순환하는 화학물질인 인슐린, DHEAS가 인간의 수명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일수록 오래 사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취학전 어린이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모습을

요즘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터넷의 복잡한 원리는 몰라도 게임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는다. 어린이들이 ‘인터넷 친구’로 당국으로부터 공식 인정됐다. 인터넷정보센터 새재철 기획실장은 “이 연령층의 많은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704가구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이들 6세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률은 69.6%로 집계돼 만만찮은 수준을 보여줬다. 초등학교생은 10명 중 9명꼴인 88.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대학생은 99.3%, 96.5%, 97.7%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거의 전원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다이제스트

■알코올 중독 유전된다 샌드러 모르조라티 박사는 ‘알코올 중독: 임상-실험연구’ 8월호 인터넷 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본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되 가족(부모, 형제자매, 사촌)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성인 58명과 알코올 중독 가족력이 없는 사람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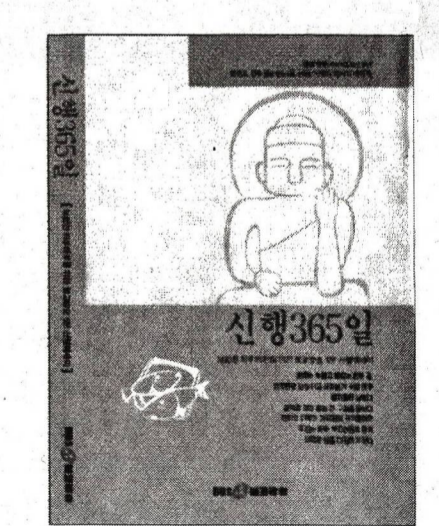
■바나나, 뇌졸중 예방 효과 과일 중 바나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인칼륨이 노인들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호놀룰루에 있는 퀸스 메디컬센터의 데보라 그린 박사는 의학전문지 ‘신경병학’ 최신호 인터넷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남녀 5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린 박사는 바나나, 토마토, 스, 오렌지 주스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칼륨 섭취량이 적은 노인들은 칼륨 섭취량이 많은 노인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량 흡연도 건강에 위험 하루에 몇 개비의 담배만 피워도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이 이런 담배의 부작용에

불교방송 자비의전화 신행상담사례 30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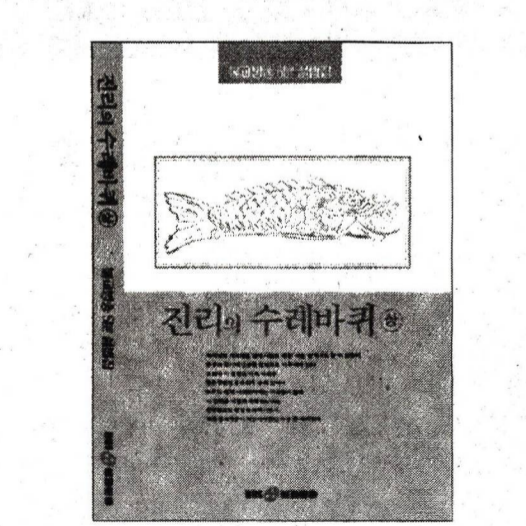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불교에서의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반 불자들이 신행생활 속에서 느끼기 쉬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불교신행입문서 신국판 344쪽/값 10,000원 초판 22쇄 발행

보람찬 하루를 위한 불교방송 5분 신행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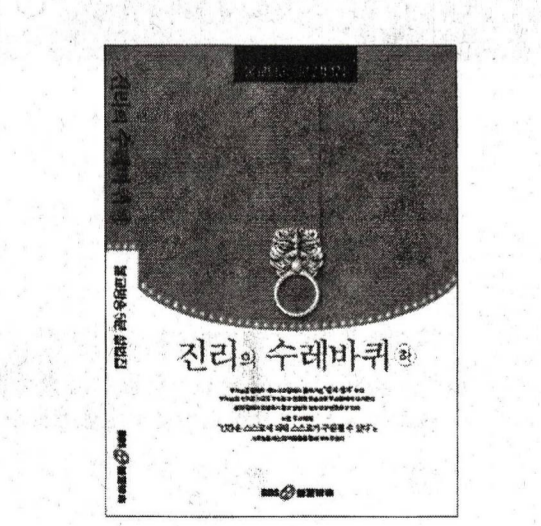
불교방송 개국이후 10년 동안 탤런트 김용림의 목소리로 전해준 지혜와 자비의 메시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은 길, 자칫하면 넘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하루, 불자들은 날마다 짙막한 경전 말씀 한 구절을 듣는다. 신국판 399쪽/값 10,000원 초판 3쇄 발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각현 대운 덕진 명선 무비 법등 법성 법장 법진 설봉 성일 성타 송강 송산 송암 시명 운곡 월운 이두 일민 정경 정안 정우 제원 중훈 지거 지안 지원 지현 청화 현근 현능 현성 해담 해봉 (가나다 순)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5쇄 발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주는 서른 다섯 스님의 법문



각명 경암 대우 도해 돈연 동봉 마성 법산 법원 벽과 삼중 선일 선혜 성엄 성운 암도 여연 영담 오연 원명 자용 정락 정인 중하 중후 지광 지명 지목 지현 지홍 철우 태호 현각 해관 해은 (가나다 순) 신국판 336쪽/값 10,000원 초판 2쇄 발행

총지논단

# 심인진리 (心印眞理)

## 일체중생의 고통해탈위한 커다란 서원 세운 원정 성사

본 글은 종조님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법정원에서 종조님 관련자료를 재정리하며 제공해준 원고입니다. 난해한 문구가 여러 군데 있으나 가감 없이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원문 속에서 교화용 서적을 최우선으로 간행하기 위해 다급하게 준비해왔던 창종 당시의 상황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글의 내용에서 구구절절 일체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셨던 대비원(大悲願)과 애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를 연재해나갈 계획이오니 원정 대성사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많으며 오래 사는 이는 적고 단명하는 이가 많으며 깨쳐서 마음이 안정(安定)한 이는 적고 번뇌로 산란한 이가 많으며 부귀한 이는 적고 빈천한 이가 많으며 온화하고 유순한 이는 적고 고집세고 격한 이가 많으며 정직한 이는 적고 아첨하는 이가 많으며 청정한 이는 적고 탐착한 이가 많으며 회사하는 이는 적고 인색한 이가 많으며 진실한 이는 적고 허망한 이가 많은 것이다.

이런 연고로 중생들이 세속을 더욱 천박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 중생을 다스리는 세간법은 자연히 중생을 구속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고, 고통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행복을 구하나 얻기 어려운 것은 백성들이 사된 것을 믿고 바른 도를 보지 못한 까닭으로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중생 스스로가 다져서 자기가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윗사람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여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에서는 아내가 심공(心工)하는 데 남편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며 가족이 심공하는 데 부모를 원망하지 않음으로 일가 친척이 창성하고 행복하게 되어서 아내를 원망하지 않음 뿐 아니라 나라 도리어 참회하게 되며,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음 뿐 아니라 도리어 불순함을 참회하고 복업을 짓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백분의 하나라도 여래를 진실로 믿고 깨닫게 된다면 하늘을 원망하고 위를 원망할 일이 없을 것이며, 도리어 순천(順天)하지 못하였을 여래께 참회하고 국민이 각각 의무를 행하게 될 것이요, 서로 인연(因緣)하여

서 오늘 이 나라의 백성인 것이다. 군주시대는 여진 임금이 계시어 평안하게 되고 민주시대는 의무를 행하는 좋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데 국가가 응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래께서 말씀하시되 대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위사 되고 일체만물에 가장 귀한 이라. 그러므로 사람이란 바른 것이며 참된 것이다. 마음은 허망하지 않고 몸은 진정(眞正)한 것이다. 항상 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는 까닭으로 이를 이룩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지이다.

사람은 능히 도를 넓히고 도는 몸을 높인다. 그러므로 도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다 성스러움을 이루게 되리라. 다시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이 이미 사람의 몸을 받았으나 복을 받지 않으면 진실한 것을 배반하고 허위(虛偽)한 것을 향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다가 명(命)이 다 하는 날에 고히(苦海)에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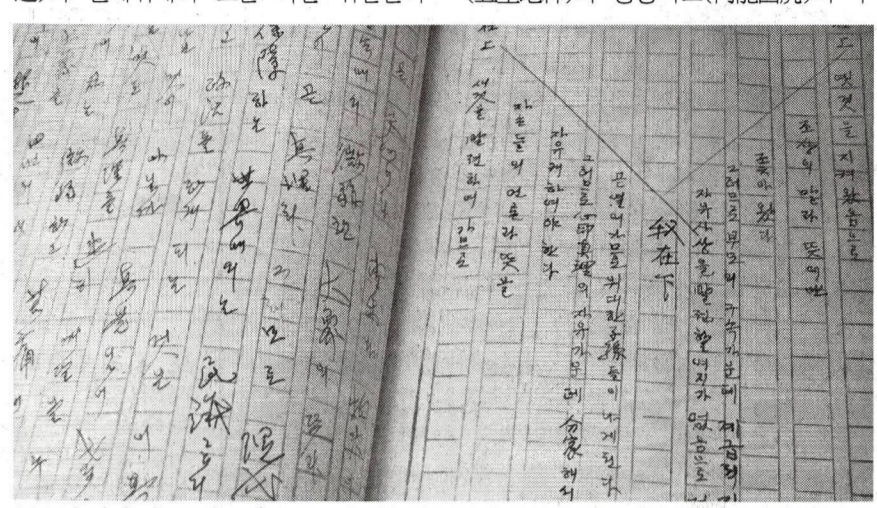
민히 생각하시어 중생이 고통을 해탈하고 고히를 벗어나는 법을 주로 설하시었나니라.

만약 중생이 사된 것을 믿고 기울어져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마외도(邪魔外道)와 일체귀매와 모든 악한 귀신들이

객질을 세우며 문호를 고치고 샘을 구축하며 방아를 고치고 의양간을 지으며 변소를 고치고 일체 수리를 하게 된다면 일유월살(日遊月殺)과 장군대세(將軍大歲)와 황번포미(黃幡豹尾)와 오로지신(五土地神)과 청룡백호(靑龍白虎)와 주

내네는 부드러워서 종지가 곧음으로 서원이 다 이루어지며 만약 관가에 구속되고 도적에 붙잡혔더라도 회사하고 심공하면 자연히 벗어나게 되며 만약 각자나 보살 가운데 타인을 위해서 주일을 정하고 심공하는 이에게는 수화(水火)가 재(災)를 이루지 못하고 호랑이가 침범하지 못하며 선신이 항상 후호(護護)하고 있으며 무애한 진각(眞覺)을 이루게 되나니라.

만약 거짓 망어와 기만과 모진 악담과 이간양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기일을 정해서 일곱주일이나 백일을 심공하게 되면 영원토록 온갖 허물도 없애지고 무애한 복진이 되어서 진각을 이루게 되며 각자와 보살님들의 부모가 죄로서 임종하는 날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칠칠심공(七七心工)에 이르게 되면 부모는 곧 지옥의 여의고 보살국토에 가게 되고 심인(心印)을 깨닫고 진각(眞覺)을 이루게 되나니라. 각자와 보살은 마땅히 알지나라.



종조님 친필 자료. 원고지에 가득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을 종조님이 손수 정리하였다.

### 진실한 心工으로 나를 관하고, 세계를 관하는 진각을 이루어야

사람은 육도에 돌아다니는 까닭으로 곧 이 세상에 죽어서 이 세상에 다시 나고 또 죽어서 다시 나는 것은 마치 허공의 구름이 일어났다가 멀고 멀하였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아서 시작과 마침도 없이 윤회하고 있는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데는 품으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것이 순전한 선(善)도 아니요 순전한 악(惡)도 아니므로 선도 짓고 악도 짓게 된다.

그러나 진실로 불법을 깨닫고 보면 선은 적고 악은 많게 되어 여래의 가르침을 믿고 깨닫지 않으면 사람은 죽고 도로 태어날수록 선은 점점 적게 되고 악은 점점 많게 되어서 고통가운데 서로 인연되어 이어오는 중생이기 때문에 유식한 이는 적고 무지한 이가 많으며 여래를 생각하는 이는 적고 귀신을 섬기는 이가 많으며 계행을 갖는 이는 적고 파계하는 이가 많으며 부지런히 심공(心工)하는 이는 적고 게을리한 이가 많으며 지혜가 맑은 이는 적고 어리석은 이가

다시 빠지고 여러 가지 죄를 받게 되나니 만약 경(經)을 듣고 성선심(善心)으로 거역하지 않으면 모든 죄업을 해탈하고 고히를 벗어나게 되며 선신(善神)이 두호(斗護)하고 모든 장애가 없으며 오래 살게 되고 횡요(橫夭)가 없나니 믿음의 힘으로도 이와같은 복이 피어나는 것이니 하물며 다른 이를 위해서 경을 쓰며 교화를 하고 심공하여 실천화도(實踐化度)하는 그 공덕은 측량할 수 없고, 죽은 뒤에는 여래를 이루리라 하셨나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사람으로 났으나 복되는 지혜를 두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므로 고통에 빠져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을 애

요란하게 와서 삼독과 같이 모든 병을 내고 고통을 받지 실새가 없는 가운데 화도(化導) 스승을 만나서 일주간 심공하게 되면 모든 악귀가 다 소멸하는 동시에 병도 곧 낫고 몸이 건강하여서 활동하게 되나니 일주간 빠짐없이 심공하는 데 이와같은 행복을 이루게 되나니라.

음욕과 진실과 치심과 간담과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도 일주간 심공하게 되면 일체악이 다 소멸하게 되고 희사할 마음이 일어나서 불법(佛法)을 믿게 되나니라. 중생 잘되는 법이 있으니 기일을 정해서 심공하고 나서 답을 고치고 집을 세우며 행낭을 세우며 정침을 고치고 헛간을 짓고 창고를 세우며 부엌을 고치고

자천무(朱雀文武)와 육갑금휘(六甲禁諱)와 십이제신(十二諸神)과 일체귀매(一切鬼魅)가 다 숨어서 다른 곳으로 멀리 달아나고 형상도 없으며 그림자도 소멸되어 감히 해를 하지 못하며 행복이 무량하니라. 각자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와같이 하게 되면 그 집은 영원히 평안하고 스스로 행복하게 되나니라.

만약 국가를 위하여 군에 나아가게 되거나 명에 오르게 될 때라도 기일을 정해서 심공을 하게 되면 공의롭게 되어서 문호가 일어나고 사람은 흥하게 되며 백자천손(百子千孫)으로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순하며 사나이는 공의롭고 여자는 지혜가 밝아지며 남편은 화하고

각해심인(覺海心印)은 어떠한 곳에서도 칠을 정해서 심공을 하게 되면 삼신(三身)과 팔보살과 범천왕이 해인(海印)을 둘러싸고 향화로 정공(淨供)함이 여래와 닮아 없느니라. 각자와 보살 가운데 모든 중생을 위해서 유행을 실천하고 칠일심공하면 관상이 통달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곧 몸과 마음이 불신(佛身)이 되고 불법(佛法)이 되는 줄 알게 되나니라.

사람이 다 입으로 착한 말을 항상 설해서 착한 법을 항상 운전(運轉)하면 곧 행복을 이루고 사된 말을 항상 설해서 악한 법을 운전하면 곧 지옥에 떨어지나니 보살은 마땅히 알지나라. 그러하니 선하고 악한 이치를 믿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불법을 깨닫고 보면 선은 적고 악은 많게 되어 여래의 가르침을 믿고 깨닫지 않으면 사람은 죽고 도로 태어날수록 선은 점점 적게 되고 악은 점점 많게 되어서 고통가운데 서로 인연되어 이어오는 중생이기 때문에 유식한 이는 적고 무지한 이가 많으며 여래를 생각하는 이는 적고 귀신을 섬기는 이가 많으며 계행을 갖는 이는 적고 파계하는 이가 많으며 부지런히 심공(心工)하는 이는 적고 게을리한 이가 많으며 지혜가 맑은 이는 적고 어리석은 이가

###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급

## “생리통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해방”



여성에게 있어 없으면 걱정, 있어도 불편한, 이래도 저래도 집스런 과정이 월경이다. 1년에 두 달 가까운 기간을 '생리중'으로 지내야 하는 여성들에게 정당한 생리는 무척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아주 많은 수의 여성들이 피할 수 없는 성스러운 통과례를 그 심한 통증으로 넘기고 있다. 월경에 동반되는 생리통,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립기 여성의 절반 가량이 겪는다는 생리통은 여성들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다. 따라서 거의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코 달갑지 않은 이 불청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십상

이다. 물론 생리기간 동안의 위생관리나 운동으로 가벼운 증상들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진통제를 영양제 먹듯 하게 할 정도의 극심한 진통까지도 감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못된다. 자궁내막이 자연적으로 괴사를 일으켜 출혈이 이뤄지는 생리는 지극히 건강한 여성들의 특권에 속한다. 다만 아직까지 명백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생리통은, 프로스타그란딘이란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촉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뿐이다. 앞에 지적한 호르몬과다 분비가 양

의학계가 밝혀낸 생리통의 원인이라면,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세가지로 나눈다. 먼저 '합승저체', 생리전이나 기간중에 몸을 차게하는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생리통이 온다는 것. 두 번째는 '기체어혈', 생리 중 위생관리에 실패했거나 격한 운동, 혹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월경 배출이 곤란해져 통증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선천적 허약 체질이거나 수술 휴중 등으로 피가 부족, 비정상적인 생리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는 '기혈허약'이 그것이다. 사실 건강한 생리에 동반되는 가벼운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진통제를 삼삼복복용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무모하게 참고 있는 경우, 그런 정도의 통증이 유발 시에는 단순한 생리통이 아니라 골반염등이나 자궁근종 혹은 자궁내막증 등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고질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치료는 예방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성식품을 비롯한 자극성 음식과 술, 담배, 커피 등을 삼간다. 둘째, 공기가 잘 통하고 보온이 잘되는 옷을 입고 위생을 철저히 한다. 둘째, 생리중 극렬한 운동이나 노동은 삼간다. 네째,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취미생활과 즐거운 일에 몰두하거나 간단한 체조, 스트레칭, 산보등을 한다. 다섯째, 습기가 많은 곳이나 찬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냉수욕이나 수영을 삼간다. 일곱째, 설익은 과일이나 찬 음식, 신맛이나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덟째 썩음이나 따듯한 물수건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상담한의원 원장 ☎ 02)532-0203

여성에게 있어 없으면 걱정, 있어도 불편한, 이래도 저래도 집스런 과정이 월경이다. 1년에 두 달 가까운 기간을 '생리중'으로 지내야 하는 여성들에게 정당한 생리는 무척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아주 많은 수의 여성들이 피할 수 없는 성스러운 통과례를 그 심한 통증으로 넘기고 있다. 월경에 동반되는 생리통,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립기 여성의 절반 가량이 겪는다는 생리통은 여성들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다. 따라서 거의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코 달갑지 않은 이 불청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십상

**동림기획 동아상사** *총지* **Orient Communications**

대표 **修正 김 동 운**  
관성사 교도

**인쇄 전문 업체**

- 카타로그, 브루슈어
- 리플렛, 팜프렛
- 전단, 포스타
- 서적(양장장, 무선)
- 다이러리, 수첩
- 청첩장, 연하장
- 카렌다(일력, 주력, 월력)
- 라벨, 스티카
- 인하BOX
- 힐택, 행가
- Sample Book
- 기획, 판촉물, 기타 인쇄물 일체

서울시 중구 황림동 25-15 삼우빌딩  
대표전화 : (02)2279-6123  
FAX : (02)2274-8421, H·P : 018-361-9663  
e-mail : orient-kim@hanmail.net

당대 불교사상과 실천을 조망하는 한국불교의 정론지!

# 참여불교 7.8월호 발간!

머리말 **본래의 재일을 되살리자**

특집 1 **계율, 왜 생활윤리에서 멀어지나**  
생활윤리로 서지 못하는 계율 / 김성철 박사  
제가불자의 계율수행 길잡이 /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편

특집 2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전략과 비전 ①**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전략과 비전 / 진각종 편

기획연재 1 **정보화 사회와 불교 ①**  
디지털화의 증식 메커니즘 / 김도근

기획연재 2 **동서문화의 시작과 분기, 그리고**

생활속의 명상 **가족의 그늘 / 한주영**

만남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 교육계 원로 김중서 박사**

특별기고 1 **한 단계 한 단계 평화와 쉼 / 김용현**

특별기고 2 **종교NGO운동의 과제 -천주교공동체를 중심으로 / 황중렬**

사찰현대화 연구 **경명사원분서 II (제정, 지역현황) / 김중환**

사찰경영칼럼 **경명사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지 / 정승기**

불교의 눈으로 영화읽기 **콜롬버스 혹은 신드롬의 열망, 영화의 존재 / 김중국**

김중찬의 경제평론 **신용카드 남용이 추가 급려의 주범 / 김중찬**

국제종교동향 **이스라엘 병역거부운동 단체, <예쉬그룰(Yesh Gaur) / 국제협력국**

종교개혁통신 **'교구본사주지 당선자, 자격없다' / 편집위원회**

나는 항상 국민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주 다른 일이지요. 가슴과 행동으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달리아리, 호주 ABC TV인터뷰 내용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 buddha21@budgate.net | 110-340 서울시 동구구 익선동 30-6 신라타워 205호 | 745-7799

격월간 <참여불교>는 전국 70여개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와 관련된 좋은 기고문을 실고자 합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5,000원 / 구독문의 : 02-745-7799



# 종단협 대북 지원사업 지속

## 현장답사 통한 분배투명성 제고



한국불교종단협회는 지난 8월 8일 상임이사회의 결의한 북한지역(자강도, 량강도 등)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지원품(급식용 밀가루 200톤)을 8월 28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전달했다.

종단협회는 2001년 3월 통일부로부터 불교계의 대북지원 지정단체로 선정되어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오던 중, 지난 9월 통일부 인도지원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한 흑한지역 어린이 활동용품 및 급식지원」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97년 4월 옥수수 2,000톤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북한지역 대 보시행을 진행하고 있

다.

이번 대북지원사업은 불교총지종 및 종단협 산하 26개 종단이 주축이 되어 모아진 북한지원기금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합하여 총 1억원 상당의 인민학교 어린이 급식지원 품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이다.

올해 5월초 분회 남측 불교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었고, 이 회담에서 「동포애적 참보시행」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약속한 불교 대표단은 지난 2월 「1차 북한어린이 활동용품 지원」에 이어 두 번째 급식지원을 거듭함으로써 서해교전 이후 잠시 중단되었던 북한어린이

를 위한 약속을 지켜나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단발성 지원에 그치던 대북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틀 속에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1차, 2차로 이어짐으로서 상호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대북지원 사업은 수해지역의 현장답사를 통한 지원물품의 분배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한 북한내 불교적 역할 증대를 위한 현장접근성을 높임으로 지속적인 남북불교교류의 교두보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 남북 불교도 화합의 서울 회동 8·15 합동법회 불참 '아쉬움'

남북불교 대표들이 분단 57년만에 서울에서 만나 불교교류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지난 8월14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조선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위원장은 남측 불교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

서울 워커히에 여장을 풀 박 위원장은 남측에서 마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한 뒤 8월16일 남한의 7대 불교종단 대표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박위원장은 "남측 대표단의 환대에 정중히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정련스님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사명을 다해 협력한다면 모든일이 잘 이뤄질 것"이

라 화답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의약품과 비디오, 금일봉등 남측에서 준비한 선물을 박위원장에 직접 전달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조계사의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는 개별행동을 원치않는 북측 대표단의 반대로 법회에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3박4일의 일정을 끝으로 8월17일 북측 대표단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으로 떠났다.

### 불교는 무신론·과학시대 영성 줄 유일 대안

달라이라마 민관 김용욱씨 동국대 대강연

“불교는 바른 삶을 추구하는 과학이자 심리학이다. 때문에 무신론적인 과학시대에 영성(영성(靈性)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동양철학의 대중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 도올 김용욱씨가 원시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김용욱씨는 참여불교재단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가 지난 10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주최한 '불교의 본래 모습 - 달라이라마를 만난 후'라는 제목의 대중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용욱씨는 계(戒)·정(定)·혜(慧) 3학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한국불교가 선불교 이상주의에서 탈피 일상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도 잊지 않았다.

1천여명의 대중이 참석한 이날 강연은 지난해 7월부터 뉴욕과 인도 등지를 오가며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나는 대화를 엮은 <달라이 라마와 도올의 만남 - 인도로 가는 길>(통나무출판사 전3권)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도 있었다.

## 정보화 구축 활용 시급

종단의 정보화 활용과 정보화 구축 및 하드웨어 보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막강한 위력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교종단의 인터넷을 이용한 포교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 인터넷 이용 포교가 아닌 컴퓨터의 사용을 중무행정에 적극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협력해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5002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은 절반(5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135곳에 해당하는 사찰의 컴퓨터 사용율은 41.7%인 1,722곳으로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사찰 2,435곳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2,215곳이 향후 구입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주된 원인은 사용미숙(44%)과 비용에 대한 부담(2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03명의 사찰 주지스님과 종무원,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및 면접조사에서는 46.2%인 530명이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 '별로 잘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고 37.5%(430명)는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 사찰 컴퓨터 보급률 41.7%

### 개신교 천주교등

### 타 종교 100%육박

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불교계의 정보화가 업무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89.1%(1,072명)은 포교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시급히 불교계에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 인프라의 구축과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을 통한 불교 디지털화 불사도 더 이상 '강 건너 불'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종단의 사정 또한 불교계의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본원의 컴퓨터와 인터넷사용으로 중무행정을 보고 있으며 종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통불교 포교에 이용을 하고 있으나 종단의 이용율은 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무부서가 없어 그나마도 업데이트에 소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스승님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이유도 있으며 또한 구조적으로 컴퓨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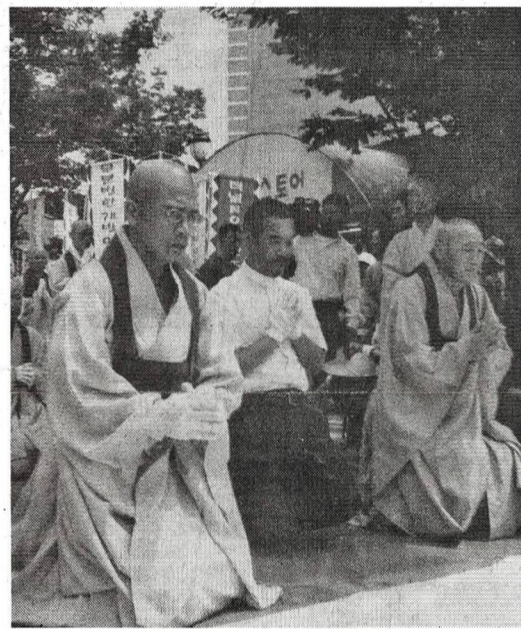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종단에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뒤떨어져있는 정보활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포교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다.

종생교회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 적극적인 신세대 포교의 개념을 적극 도입 해야 한다.

## 북한산 사태 일단락

철마선원 자진철거. 민사 행정소송취하 14일 5개항 합의



철마선원 자진철거. 민사 행정소송취하 14일 5개항 합의

철시 노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 정부가 최종결정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된 각 민사·행정소송 취하 등이다.

이로써 북한산 관통도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불교계와 시공사의 9개월에 걸친 대립은 국민 여론수렴과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지혜를 짜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14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12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4공구에 대한 공사 보류 △8월말까지 철마선원 자진 철거 △불교계, 건설회사,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 8월말까지 구성, 12월31일까지 합의 도출 △합의 결

불교계 및 환경단체는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에 대해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의 자연과 수행환경지키기에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우회도로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회사와 건교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강행하는 과정에서 폭력배의 등장 및 민사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

욱 가중시켰다.

### 법륜스님 막사이상상 수상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지난달 29일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레인본 막사이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필리핀 막사이상 선정위원회는 정치적 정파에 개입하지 않고 탈북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된 올해의 수상자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법륜스님은 "이 상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남북 화해와 인도적 지원을 이끈 모든 민간단체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3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행된다.

### 쓴소리 단소리

#### 특정 종령님의 종단사랑에 대하여

“현 종단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이고 저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승단의 화합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8월16일 종정(宗政)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기로 스승님 앞에서 하신 특정종령의 말씀이다.

특정 종령의 종단사랑과 종단의 발전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 자리에 계신 종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표정도 특정 종령의 각오와 다르지 않았다.

종단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다

창조주인 원정대성사님의 정통불교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렸고 그 후 수많은 선배 진언행자들이 불교총지종을 반석에 올렸다.

반석에 올린 역사의 이면에는 반드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어려움과 혼란에 슬기롭게 대처해

온 선배스승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불교총지종이 있었을 것이다.

역사속에서 고난을 극복한 선배스승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슬기와 지혜는 계승 발전시키고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고 종단의 종범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결단의 책무가 젊은 승직자에게 있다. 아니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속인이 남을 헐뜯는 소리를 들어도 믿지 않노니, 갖가지 도리에 벗어난 비방을 일삼는 자는 대죄(大罪)를 지음이 되리라”라 하시며 화합을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비법(非法)이라 하셨다. 또한 부처님께서 교단을 길이 보전하기 위해 “진리(法)와 정의에 대해 자주 의논하라”고 하셨다.

법(法)과 정의(正義)속에 화합이 있고, 법(法)과 정의(正義)속에 정도(正道)가 있으며, 법(法)과 정의(正義)속에 일체의 하나됨이 있다.

법(法)과 정의(正義)를 벗어난 일체의 행위는 모두 비법(非法)이며 사법(邪法)이다.

비법(非法)과 사법(邪法)을 물리치고 정법(正法)과 정의(正義), 종법(宗法)을 올바르게 세우야 한다.

#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 달라이 라마의

##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강주현 옮김 신국판 변형 값 8500원

“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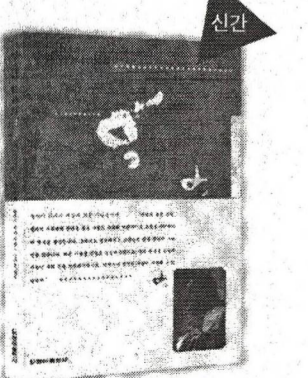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 주듯이 우리 죄를 걱정해 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연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절박한 조언들을 담았다.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실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실천이지요

### 작은 거인 정정심 스승님 - 작은 몸짓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구도자의 열정



인간미가 덜하여 무미건조한 느낌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정정심 스승님도 그러하다는 선입감이 나에게 있었다.

스승님과의 만남에서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좁은 소견이었는지 깨달았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누구보다도 넓은 가슴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였다.

스승님의 가슴에는 용광로 같은 구도자의 정신과 종생에 대한 한없는 따뜻함이 함께하고 있다.

부처님은 분별한 마음을 매우 경계하였다. '분별(分別)은

사람에게는 각자 사람마다 독특한 그 사람에 대한 향기(香氣)를 지니고 있다. 넉넉한 향기를 가진 사람, 마음 깊은 향기를 가진 사람, 사랑을 즐겁게 하는 향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 넓은 향기를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주위에는 많이 있다.

수행자(修行者)에게도 독특한 수행(修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총지종 스승님들 중에서도 어떤 선지식(善知識)은 인욕(忍辱)에 대해, 어떤 수행자(修行者)는 계율(戒律)에 대해, 어떤 스승님은 선정(禪定)에 남다른 체계와 모습을 보이신다.

정정심 스승님의 향기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생심을 갈고 닦는 구도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친다.

정정심 스승님의 수행의 향기는 아마도 정진(精進)일 것이다.

큰 쇠기둥을 갈고 닦아 가는 바늘을 만든 것과 같이, 뾰족한 쇠바늘을 닦고 닦아 맑은 명경(明鏡)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장인의 모습, 구도자의 모습이 정정심 스승님이다.

불교 총지종은 다른 종단과 달리 유난히 불공시간이 많다.

새해대사원불공으로 시작해서 매월 월초불공 매주 자신의 성품을 찾는 자성일 불공과 상반기 49일



불공,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을 하고 있다.

이는 원정종조법의 시시불공 처처불공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통해 이땅에 정통불교의 깃발을 올리시며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종조법은 "소원 있어 정진할 때 제일시간 빠지 말고 용맹으로 성공하면 성취함을 알지니라. 만일 시간 늦었거든 그로부터 곧 이어서 시간 일찍 나오기 간 다시 정진할지니라. 새로 정진 못할 때는 하루정진 할지라도, 정진(精進)중에 지족(知足)하여 분의 탐심(分外貪心) 내지 말며, 정진중에 안인(安忍)하여 진애심(眞心)을 내지 말며, 정진중에 인과 믿고 우치사견(愚癡見) 내지 말며, 정진중에 십선행(十善行)해 십악업(十惡業)을 지지말라"고 원정종정법은 강조하셨다.

연 일 폭염이다. 관음사 정정심 스승님을 뵈러 가는 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수은주가 몇 년만에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피서 인파로 가득하여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여분이 늦어졌다.

모든 일에 철저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 수행관을 피려하신다.

스승님은 수행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인과 밖이 똑 같다.

언젠가 부산 정각사에 작은 말뚝이 풀이지 않고 일어났다. 그것을 해결하고 평정하신 분이 바로 정정심 스승님이시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스승님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구도자의 열정을 보면 마땅히 그러했을 것이라곤 수긍이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1974년 정각사에서 정각원스승님 은사로 수행  
1980년 복혜서원당 현 제석사 주교  
1982년 성화사 주교  
1994년 정각사 주교  
2001년 부산 경남교구장  
2001년 현 관음사 주교

스승님은 사랑도 큰사랑을 보여 주셨나 보다. 다른 부모처럼 일일이 옆에서 챙겨주고 어루 만져 주는 사랑이 아닌 몸소 실천하고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줘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사랑을 주신 것이다.

스승님의 실천하는 사랑, 큰사랑의 인연은 도반(道伴)을 얻는 것으로 이어졌다. 진언수행자로서 어머니와 자식으로, 아니 진정한 스승님과 제자로써 열매를 맺었다.

혈육의 인연이 아닌 진정한 도반(道伴)으로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네가 도를 닦을 때 도반(道伴)이 얼마만큼 공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에 아난은 "한 50%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있어 전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모난 돌이 정을 만나면 반달반을 쏘아지듯 도반(道伴)은 서로 경책하고 점검하는 대상이며 탁마(琢磨)하여 자신의 허물도 알 수 있고 모난 성격도 고치는 스승이기도 하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같은 진언 수행의 길을 걷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니 도반(道伴)의 관계를 맺은 즐거움은 스승님의 붉은 눈시울을 닦아주기에 충분 하였다.

"평생을 달려 왔습니다. 달려온 길을 뒤돌아 볼 기회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자기를 위한 내 본심(本心)을 닦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법을 끝까지 실천하고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언행자의 도리입니다."

거짓됨 없이 자기를 닦고 거짓됨 없이 실천하고 자신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스승님 앞으로 무엇을 더 하고 싶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우문(愚問)에 빙글 미소를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다.

수행의 끝은 없었지만 평생을 수행의 길을 걸으신 분이 또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을 걷겠다 하니 우리를 부끄럽게까지 만드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심과 중생심을 맑은 거울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정정심 스승님은 마음 닦는 수행정진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부산시 진구 당감 2동 64-5 ☎ 051)896-1578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니,  
마치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끊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를 일이 없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만약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주 게으름에 빠져 수행을 중단한다면,  
마치 나무를 마찰해 불을 내려다가 열도 생기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불을 얻고자 해도 불가능한 것과 같아서, 소기의 목적은 이루어질 까닭이 없다.  
이같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을 정진이라고 한다.

마치 달 속에 여러 가지 물체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세상이 무실(無實)하건만 분별함을 따라 일어난다. 분별하는 까닭에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제까지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였는지 몸뚱이를 물랐다"며 당시를 회고하였다.

그후 스승님은 정각원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긋남 없이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에 수순하였다.

정각원 스승님의 철저한 수행과 지극한 정진의 모습이 정정심 스승님에게 그대로 이어졌을까? 정정심 스승님의 수행과 정진은 정각원 스승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정심 스승님은 체구가 작고 가냘프다. 어떻게 저분이 힘든 7시간 정진을 매일 밥먹듯이(?)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맑은 마음에 거울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고 맑게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로 화가 났거나 탁한 마음에 거울을 보면 거울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내가 보기도 너무 못생기고 추하게 보입니다. 같은 거울인데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수행은 외적환경과 물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정심 스승님의 강단

것이다" 라고 하였다.

스승님은 무실(無實)하게 있는데 자꾸 중생의 분별심(分別心)이 무실(無實)한 모습을 제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우(愚)를 밟고 있으니 분별한 마음에 대한 수행이 얼마나 중요인지 깨우치는 기회가 되었다.

스승님의 수행자 모습이 너무 강해 스승님 내면에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을 보지 못한 듯 중생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정정심 스승님의 진언수행은 1974년에 우연찮게 다가왔다. 중증의 오일과동으로 사업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달아 부산 정각사에 들렀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 가정해탈을 위해 1주일 철야 용맹정진을 하여 문득 묘한 깨달음을 얻고 본격적으로 진언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잘사는 사람은 전생에 그만큼의 복덕을 지었고, 못사는 사람은 그만큼의 복덕을 짓지 못해서입니다. 잘살고 못사는 것 자체가 나의 허물과 나의 탓이다는 당시 정각원 스승님의 법문이 가슴에 와 닿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펄펄 흘렀습니다"

있지만 스승님이 계시는 곳은 사공은 많이 있으나 수행과 생활에 반듯함은 진정한 사공으로 추앙 받아 배가 산으로 가는 염려를 불식시킨다.

"수행자로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마로써 자식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못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새 스승님의 눈가는 붉어진다. 자식사랑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으리라.

"우리의 생활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계의 명에 의해 다른 사원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 자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학 때문이지요. 승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못해준 것이 있다면 남들처럼 자식들 곁에서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보다는 항상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중생교화와 자기수행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관심과 신경이 덜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생활을 이해해 주고 별 탈 없이 세상을 이겨낸 자식들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